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설교

여러분, 혹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어서 허탈했던 적 있나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친구에게 잘해줬는데 오히려 오해받은 경험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 시몬 베드로도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지치고 낙심한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 선생님이었어요. 경험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해 다시 도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낙심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실패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십니다.

예배 순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기뻐해 다 같 이

말 씬 봉 독 누가복음 5:1~11절 다 같 이

설 교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도전하라 설 교 자

말 씬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찬 양



▶ 찬양 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때로는
실패와 낙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다시 도전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믿게 하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이 최근에 포기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2.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싶나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